

# 尹 “내년 저리융자 4조원 등 소상공인 특단 지원책 준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 성료  
산업훈장 2점 등 총 144점 ‘포상’  
이영 “4대 핵심과제 집중 추진”  
尹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한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지난 3~4일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소상공인대회에선 범성정밀 김동명 대표가 철탄산업훈장, 신홍화 스너 강충호 대표가 석탄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또 쌍용반점 고영수 대표, 한성자동벨브 김용대 대표는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대회에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올해 소상공인대회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주역’이란 슬로건으로 이틀간 열렸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린 소상공인대회는 올해가 18회째다.

올해 대회 정부포상에선 모범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총 144점을 포상했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산자중기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영 중기부장관,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오세희 소공연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및 지역 단체장,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앞서 메이크업 미용시험회 행사장을 방문,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전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행사 개최 등도 약속했다.

행사에선 소상공인연합회와 11번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카카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우아한형제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네이버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 성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안정되면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민생경제가 살아난다”며 “소상공인의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해 소상공인이 잘 살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요일까지 열린 소상공인대회는 ▲맞춤양복협회패션쇼 ▲경쟁력 있는 지역 상품 발굴을 위한 우수상품 품평회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콘서트 ▲

법률 토크콘서트 등이 두루 펼쳐졌다.

또 쿠키 만들기, 퍼스널컬러 진단, 가상 헤어스타일링, 라떼아트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꽃상자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박성호 이사장은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틀간 열린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는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펫산업연합회·한국애견연맹, 한국화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자동차유리 판매업협동조합 등 9개 단체 소속 16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을 뽐냈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전통 시장·상권 성장 기반 확충, 규제 혁파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당당한 경제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에 매진해 성공한 기업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견련, 중견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예탁원과 해외 자금 조달 역량 제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손잡고 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5일 중견련에 따르면 예탁결제원과 ‘중견기업 자금 조달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속한 대내외 자금 조달 및 안정적인 주주 관리 등 중견기업의 건실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권 발행, 증권 전자 등록 및 유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해외 자금 조달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을 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증권 등 집중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식 등 관리 자산 규모는 약 6400조원에 달한다.

아울러 2024년 말까지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 발행 기본 수수료 20% 감면, 주식 발행 등록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예탁결제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증권 발행 업무와 주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교원그룹, MZ 동화작가 창작 돕는다

교원-더랜드 통해 3명 선발

교원그룹이 청년 동화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교원-더랜드(Kyowon-der Land)’를 진행한다.

5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더랜드’는 그룹이 지난 2021년부터 펼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자립적 성장을 돕는 ‘청년 창작자 지원 캠페인’ 일환이다. 앞서 진행한 웹툰작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원에 이어 세 번째다.

교원그룹은 동화책 시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동화작가의 활동 무대가 좁아짐에 따라 이들이 작가로서 꿈을 지속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교원-더랜드’를 기획했다.

교원-더랜드는 MZ세대 동화작가 3명을 선발해 ‘어른을 위한 동화’를 주제로 3편의 동화를 묶어 선보인다. 단편집은 오는 12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작가들이 집필하는 동안 오롯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12월22일까지 SNS 캠페인 등 작가와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



교원-더랜드 캠페인 이미지.

는 활동을 이어간다. 교원그룹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화작가 인터뷰, 동화를 연계한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 MZ세대의 관심을 적극 공략한다.

또한 완성된 단편집은 SNS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꾸준한 노력과 실력으로 작품세계를 다져온 청년작가들이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 창작자 지원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지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술혁신’ 공유

스타트업 축제 ‘2023 컴업’ 연계  
8~10일 성수동 S-팩토리서 예정  
프랑스, 日 혁신 클러스터 MOU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 UP)’과 연계해 규제자유특구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혁신 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K-글로벌 클러스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프랑스 코스메틱 벨리·일본 쇼난 I-Park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위한 행사(8일),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의 지난 3년 간 성과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10일), UL코리아가 국내 스타트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인증 세미나 등도 마련했다.

또 총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에는 미

래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한다. 첨단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드론 격투 스포츠인 ‘드론클래쉬’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R&D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신약 개발에 따른 기술 분쟁 해결 등 바이오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

행사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컴업 2023’이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셔틀버스도 1시간 간격으로 매일 운행한다. /김승호 기자

## 신세계까사, 펫가구 ‘몽스’ 매출 성장세

출시 이후 매월 85%씩 올라

신세계까사(SHINSEGAECASA)가 지난 8월 선보인 까사미아의 프리미엄 펫 가구 ‘몽스’가 출시 이후 매달 85%씩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몽스는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만족시키는 펫 가구’를 목표로 세부적인 기능과 디자인, 소재 등에 차별화를 뒀다.

특히, 사람이 사용하는 가구들과 잘 어울려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 고급 가구에 주로 사용하는 원목

과 기능성 원단 등 좋은 소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생활패턴과 습성,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디테일과 기능들도 인기 요인이다.

이 가운데 ▲모듈형 소파 ▲갯가구 5종 ▲펫쿠션 등 ‘모듈형 소파’와 ‘갯타워’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

몽스 소파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앉거나 동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높이는 낮게, 등받이와 팔걸이는 넓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